

#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2년 5월 뉴스레터 vol. 53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채비가 만난 사람들 이창환 신임회장에게 묻다
-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손녀가 준비한 아름다운 장례식
- 숫자로 보는 채비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문제이다 68.2%
- 채비학교 제4기 예비 상주학교 수강생 모집
- 설문조사 채우고 비우는 '채비함' 의견 조사
- 조합소식 작은모임 지원사업 공모

# 그리움은 채우고, 슬픔은 비우는 이별을 준비하는 상자 ‘채비함’에 대한 의견 조사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은 ‘채비함’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를 죽음에 대비한 상자입니다. 삶의 추억과 기록이 될만한 사진, 자료, 물품을 상자에 담아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 살다 간, 중요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담습니다.

채비장례는 작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채비함을 기획했습니다. 곧 조합원과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 (링크 클릭) <https://forms.gle/BgE3R6SenFUbBhL1A>



# 이별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사전 장례식’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홍민정 작가의 장편 동화 ‘모두 웃는 장례식’에서는 주인공 윤서네 가족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사전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사전 장례식’은 죽기 전에 친척, 지인 등을 초대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기 암환자 김병국씨는 "죽고나서 장례 지내면 뭐하나, 살아있을 때 작별인사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지인들에게 "죽은 다음 장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임종 전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춤추고 노래 부릅니다."라는 부고를 보내 살아 생전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눴습니다.

망자에게 인사하는 장례식은 더 이상 서로 ‘인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스스로 하는 헤어짐을 ‘작별’이라 하고,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을 ‘이별’이라고 합니다.

채비장례는 존엄한 이별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사전 장례식’을 신청 받아 1팀을 선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 ■ 사전 장례식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 및 생애영상 함께 보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이별 인사 하기, 음식과 다과 나눔. 위로와 축복의 마지막 이별 인사

\*프로그램은 장례식 주인공/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 주요지원사항

- 행사 기획 및 진행, (공간채비) 대관비, 생애 영상 제작, 행사 영상

## ■ 협조사항

- 사전장례식 다큐 촬영 동의 및 언론 홍보 초상권 허용

## ■ 신청 (링크 클릭) <https://forms.gle/rCyHZcvE8em26Xo2A>

## 이창환 신임회장에게 묻다

이창환 신임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지난 3월 24일(목) 오후 2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이창환 이사를 선출하였다. 우리 연합회는 9개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었고, 소속 조합원은 3500명에 달한. 회장은 연합회의 대표이자 총회의 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창환, 그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Q: 먼저 어려운 시기에 선뜻 중책을 맡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회장 취임 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요.**

“저는 노동자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1984년 대학에 입학했고, 제 또래 많은 이들과 함께 광주항쟁을 접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어요, 또 전태일 열사와 부모님의 삶을 접하면서 노동현장에 투신했고 주로 노동문화운동 영역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다 1990년대 말 조합원들이 더이상 노동가요에 감동하지 않고 지도부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즈음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공동육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차별하지도 당하지도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Q: 그때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산에서 마을운동을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협동으로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지요. 성미산마을로 이사하고 본격적으로 ‘마을살이’를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서울시와 협력해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사업, 협치사업 등 여러 영역에 두루 참여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Q: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는지요.**

”우리 조합이 꿈꾸는 소박하고 존엄한 장례는 마을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마을에서 이웃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떠나고 싶을 테니까요. 제가 관여하던 사단법인 마을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이어 받아 서울조합의 부이사장으로 참여했어요. 물론 2013년에 이미 조합에 가입하기도 했지요.“

**Q: 서울조합 이사장과 연합회 회장을 동시 맡고 있는데, 먼저 서울조합에서는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장례의 특성상 조합원의 일상활동에 한계가 있고 반복구매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회원조합이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가 합니다. 회원조합의 사업을 통한 활동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저는 어렵더라도 협동을 통해 조합원

의 필요를 해결한다는 근본취지에 맞게 활동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이 일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조합원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Q: 연합회 회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 조합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부패하고 혼탁한 장례시장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장례를 치러왔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장례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허례허식의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 소박하고 간소한 ‘채비장례’도 창안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반면 만성적인 적자 속에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회원조합,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여러 차례의 난관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믿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Q: 복잡한 사안이나 갈등을 해결할 때 판단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인지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일의 결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협동조합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 당장 일의 성과보다는 사람의 성장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Q: 좋은 죽음, ‘웰다잉’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음, 어렵네요. 좋은 죽음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삶이란 결국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스스로 선다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고, 서로를 살리는 것도 스스로 서는 존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은 죽음은 이와 같은 좋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우리 조합이 잘한 점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보다 잘한 점은 10여 년 동안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며 잘 유지해온 점을 꼽고 싶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이래 모범적인 협동조합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조합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 데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무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물론 조합원이고, 조합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가 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일은 상근하는 분들의 몫입니다. 사무국과 잘 협의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Q: 우리 조합이 사회적경제진영에서 어떤 위상은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자본 중심의 상조사업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시도하고 개척해 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성공사례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위상이 아닐까. 희망사항인가(웃음).”

**Q: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은 어려울 때도 흔들림 없이 조합을 지켜주었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꼭 오고 싶고 참여하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좋은 조합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



더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이다. 觀察보다는 實情이, 애정보다는 實踐이.  
실천보다는 효행이 더욱 중요함이다. 심장의 同一性, 그것은 관 계의 화고함때입니다.  
이제

## 손녀가 준비한 아름다운 장례식



젊은 여성이 전화로 채비추모장례 문의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겨레두레의 조합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의 근황을 말해주며 조만간에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아름다운 마지막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합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기 전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름에 몇월 몇일에 상담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임종이 임박한 것 같다며 더 구체적인 준비를 묻고 답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나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몇 달 후 21년 가을 어느날 임종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족을 만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미리 공유된 상황이어서 큰 어려움없이 진행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다른 형제분들은 추모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살짝 난감했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중요한 설명을 드렸고 유족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추모식 준비는 수월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연락을 해왔던 큰 손녀가 사진, 유품, 생애사, 편지 필요한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해도 있고, 의지도 있고, 준비도 있으니 모든 준비가 순탄했습니다.



당일에 10여명의 유족이 오셨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조문보 속 영정사진의 할머니는 아기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이 조문을 와서 헌화하고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참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활발한 분이어서 젊으실 때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노년에는 노인정 친구들과 활기찬 시간을 보내셨다. 흥이 많으셔서 자주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나눠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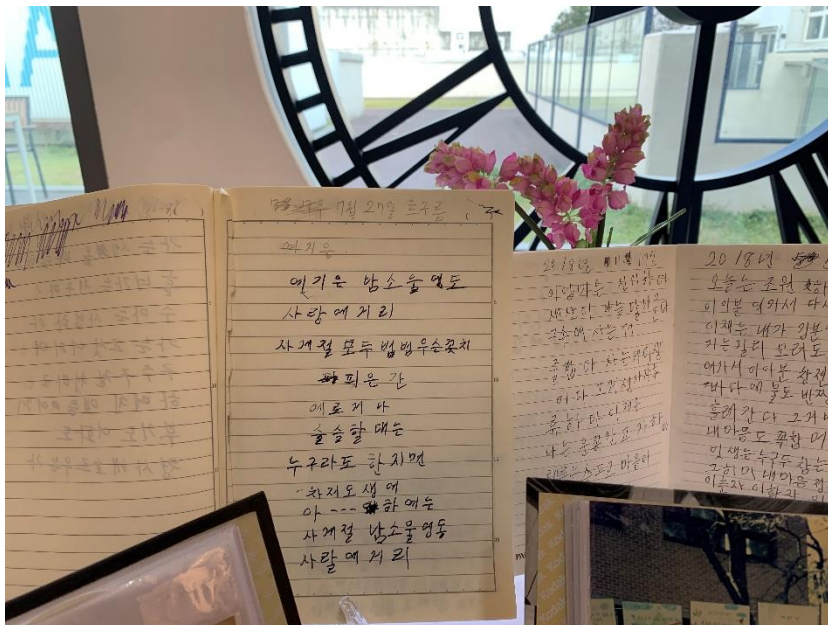
고인의 유품 중에는 손주들을 생각하는 애뜻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늦게 한글을 배우시느라 삐뚤삐뚤 써 내려간 노랫가사들도 있었습니다.

따님 중에 한 분이 그 글을 읽어주다 노래도 부를 때는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모식도 조문객을 맞이하는 시간도 애뜻한 가족애를 많이 느끼게 하였습니다.

추모식을 의논하고 준비하는 일을 도맡아 했던 큰 손녀는 마지막까지 장례의 모든 과정을 잘 돌보았습니다. 자기 삶에만 관심있을 젊은 세대가 할머니의 장례를 살뜰히 챙기고, 가족들을 돌보는 모습에 채비추모장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장례가 부의금을 갚는 행사가 아닌 생애말기에 세대간 돌봄으로 변화하여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 투병의 기록



### 연민의 기록

에르베 기르베저 | 신유진 옮김 | 알마

《연민의 기록》은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사진 칼럼니스트인 에르베 기베르(1955~1991)가 《빨간 모자를 쓴 남자》《내 삶을 구하지 못한 친구에게》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소재로 쓴 자전적 소설 3부작의 마지막 소설이다.

에르베 기베르는 어떠한 금기도 인정하지 않는 거침없는 태도로 에이즈의 파괴적인 면모를 파헤치는 논쟁적인 작품들을 발표했다. 그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동안 그 병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삶의 마지막을 색다른 명성의 광휘 속에서 보냈다.

작가이자 에이즈 환자인 에르베 기베르, 그의 친구들, 환자들과 간병인들. 그리고 스물여덟 살의 젊은 의사, 클로데트 뒤무셀이 등장하는데, 이 아름다운 여성이 기베르를 진찰할 때마다 둘 사이의 묘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어쩌면 사랑에 가까운 관계일까, 절대 알 수 없다.

새로운 약도 등장한다. 구하기 어렵고, 검증되지 않았으며, 아직 실험 중인 약물, 디다노신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 약물을 암시장에서 입수한 삼백 여명이 의사의 지시 없이 절망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해 목숨을 잃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의사들이 ‘연민의 기록’이라 부르는 실험 의정서 안에서 말기 환자들 에게만 지급했다.

에르베 기베르는 그 새로운 약으로 쇠약해진 상태를 극복하며 글을 쓸 수 있었다. 위험하고 실험적인 치료법으로 그가 경험했던, 짧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수반한 ‘부활’에 대한 감동적인 투병의 기록이 바로 《연민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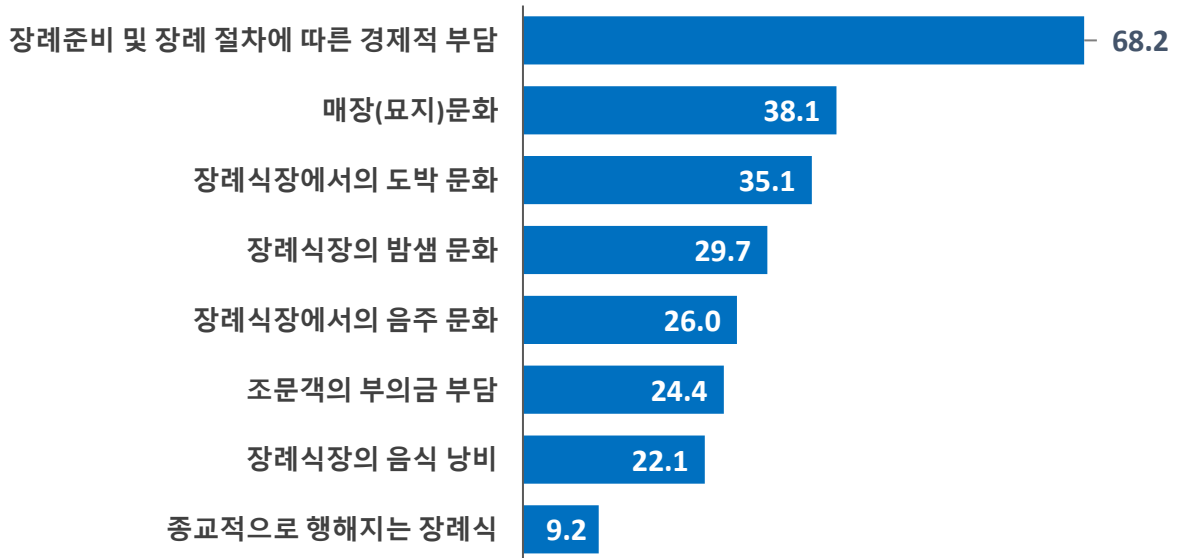
《연민의 기록》은 질병으로 인해 고작 서른다섯 살에, 노인의 몸이 된 한 남자의 당황스러운 고통과 분노, 슬픔 그리고 외로움, 그렇지만 끝내 놓지 않는 ‘희망’에 대한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기록이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 1 개선이 필요한 국내 장례문화

## 장례준비 및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문제이다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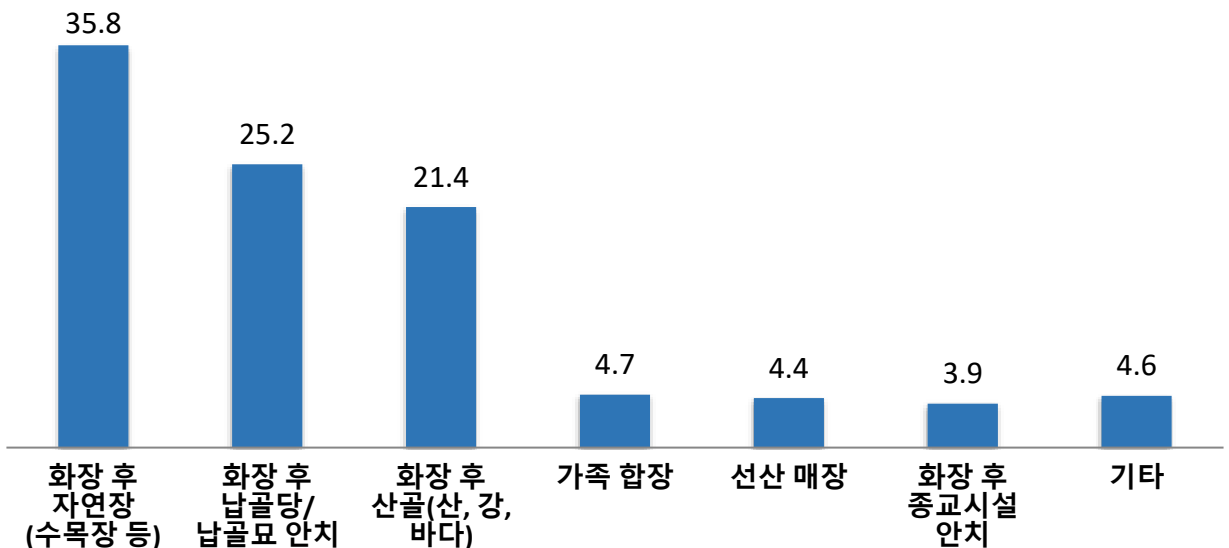
개선이 필요한 국내 장례문화 (n=1000, 중복, %)



# 2 가장 이상적인 장례 방식

## 화장 후 자연장이 증가할 것이다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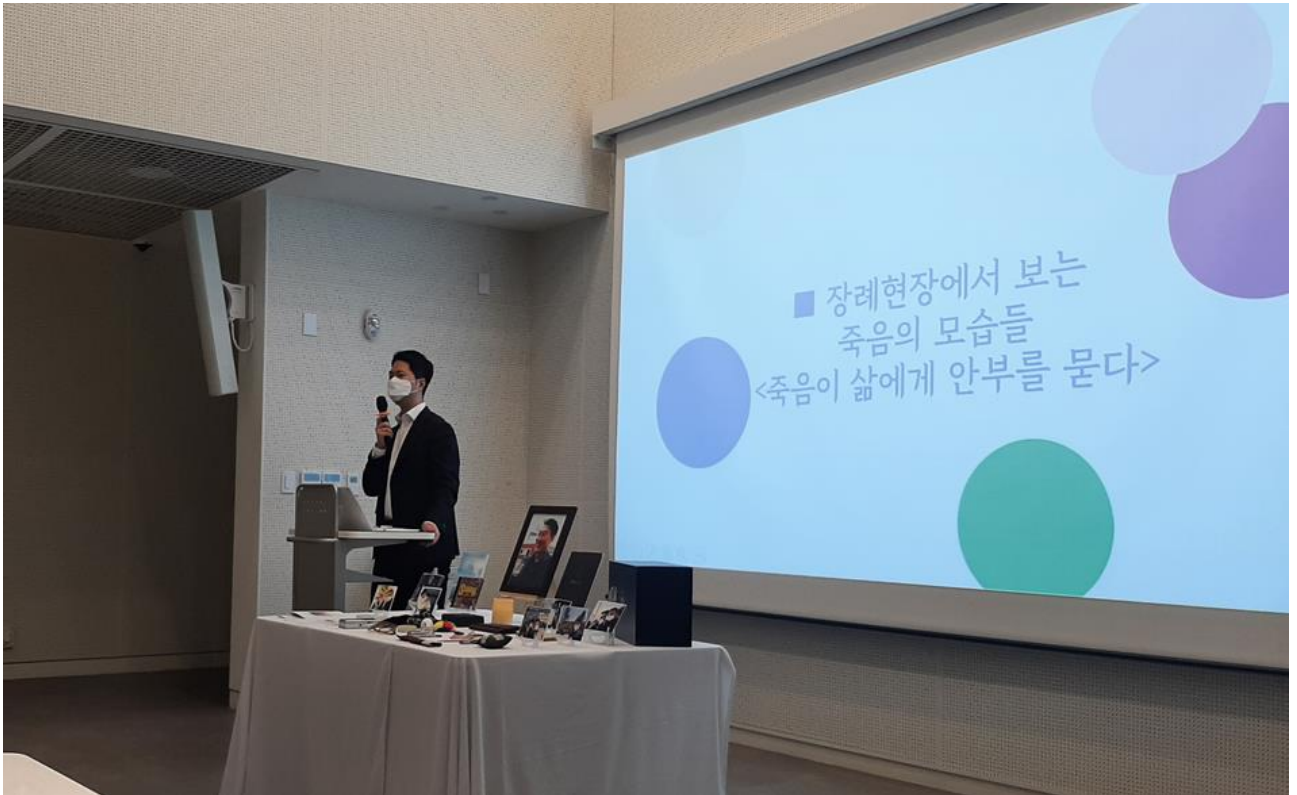
가장 이상적인 장례 방식 (n=1000, 중복, %)



\*자료출처: 죽음 및 상조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2019. 전국 19~59세 성인남녀, 트렌드모니터



## ‘죽음과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슬픔의 시간, 애도의 대화’ 강의 후기



지난 4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간 ‘김근태기념도서관’에서 죽음과 삶에 관한 인문학 강의를 있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소속의 매니저, 장례지도사, 홍보담당자를 강사로 ‘채비장례’ 소개와 장례 준비, 추모식 준비에서 가상 추모식까지 진행하였고, 관심 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비추모장례의 의미와 치유가 이런 외부 활동을 통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외부강의 요청 문의 02)722-9517/1800-9517



## 제4기 예비 상주학교 수강생 모집

### 장례, 어떻게 준비할까?

죽음이란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이승의 일을 두고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정리하고 준비된 이별을 한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혹여, 이런 일들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 있는 이 순간 나와 가족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비학교 강좌를 통해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죽음과 장례를 이해하고, 임종에 임박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 교육 소개

- 대상: 장례가 임박한 분, 미리 장례를 준비할 분, 장례 상담이 필요한 분 등
- 일정: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4시-6시
- 교육 정원: 총 15명 내외 (대면, 비대면 동시 강좌)
- 신청: <https://forms.gle/pmS7brDKpW3JLwbKA>
- 교육 장소: 온라인+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문의: 02)722-9517

#### ■ 프로그램

- ① 장례식의 의미
- ② 추모식과 장례 진행 과정 이해
- ③ 사전준비와 사후에 정리할 일들
- ④ 부모(가족)와 추억 만들기, 가족사 쓰기 등의 의미

#### ■ 강사소개

박태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대표 장례지도사.

10년 동안 장례지도사로 살며 죽음은 삶의 과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죽음의 풍경은 익숙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다. 철학을 가진 장례지도사를 꿈꾸며 현재 동국대에서 생사학 석사과정을 전공 중이다. 지은책(공저)으로 <죽음이 삶에게 안부는 묻다>(검동소)가 있다.



## [서울조합] 작은모임 지원사업 공모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원을 위한 작은 모임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간 채비를 이용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채비장례와 연결되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작은 모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년 6월 ~ 10월 31일까지
- 모집 분야: 제한 없음(독서모임, 영화 모임, 1인가구장례 품앗이, 품앗이 포럼 등)
- 모집 대상: 조합원과 조합원의 지인, 가족 등 조합 선정 기준에 부합한 모임
- 지원 내용: 총 200만원 지원(각 모임당: 운영비 30만원, 채비공간 14시간 이용권(70만원))
- 지원 규모: 2개 모임(모임당 인원 최소 5인이상)
- 모집기간: 2022년 5월 20일 ~ 5월 27일
- 신청방법
  - 진행: 모집 > 심사(서류 + 전화) > 선정자 발표(개별통보)
  - 문의: memorypicture@naver.com / 722-9517/720-9517 (오전10시~오후 5시)
  -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https://me2.do/5WGkfsFF>에서 다운로드)
  - 신청: 이메일 접수 (memorypicture@naver.com)
- 유의 사항
  1. 심사 관련 : 심사와 선정, 관련된 사항은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2. 신청 관련
    -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지원 사업서는 사무국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3. 지원 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 계획이 추진 되지 않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의무와 협조 사항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과정과 성과물 제출 (첨부 양식)
    - 홍보물로 사용 가능한 기록물 필수 (활동 영상, 사진, 활동 결과물 사진 등)
    -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과 관련 자료는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모임 홍보가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서 적극 지원함

## 2022. 4월

박봉균 조합원 부친상  
황인호 조합원 빙모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정수 조합원 부친상  
장영순 조합원 부친상  
이철손 조합원 부친상  
이민정 조합원 부친상

오승준 조합원 모친상  
권용덕 조합원 부친상  
박태호 조합원 지인상  
안경호 조합원 모친상  
장동순 조합원 큰어머니상  
성경아 조합원 부친상

정영순 조합원 형제상  
배영천 조합원 부친상  
강승훈 조합원 모친상  
남택주 조합원 모친상  
손봉길 조합원 모친상  
서정례 조합원 모친상

## 2022. 3월

김석균 조합원 빙모상  
서상권 조합원 모친상  
최진아 조합원 모친상  
김승택 조합원 빙모상  
윤승용 조합원 빙모상  
홍석우 조합원 조모상  
김상민 조합원 모친상

임성현 조합원 모친상  
박경숙 조합원 부친상  
이원상 조합원 조모상  
김복자 조합원 배우자상  
강명구 조합원 부친상  
이수중 조합원 모친상  
박봉균 조합원 부친상

권영구 조합원 모친상  
조영곤 조합원 부친상  
이상진 조합원 부친상  
이성희 조합원 시부상  
손영순 조합원 부친상  
남택주 조합원 모친상  
오승준 조합원 모친상

## 2022. 2월

이상연 조합원 모친상  
신희순 조합원 모친상  
이상화 조합원 부친상  
박정선 조합원 부친상  
남화선 조합원 부친상  
정재민 조합원 모친상  
심금순 조합원 아들상  
남화선 조합원 시모상

조석현 조합원 모친상  
박예진 조합원 부친상  
홍문국 조합원 부친상  
김진국 조합원 빙부상  
한 준 조합원 모친상  
이주연 조합원 모친상  
김영아 조합원 부친상  
윤원철 조합원 부친상

양미선 조합원 부친상  
유대환 조합원 부친상  
박옥경 조합원 모친상  
김일태 조합원 모친상  
김재삼 조합원 모친상  
김태열 조합원 부친상  
김성한 조합원 모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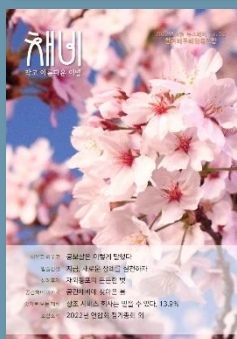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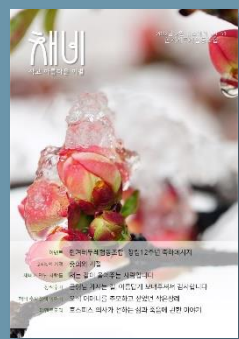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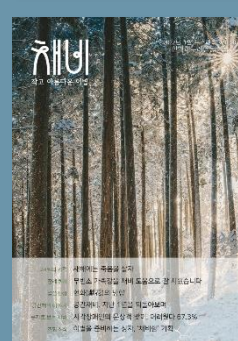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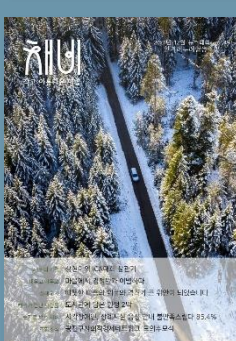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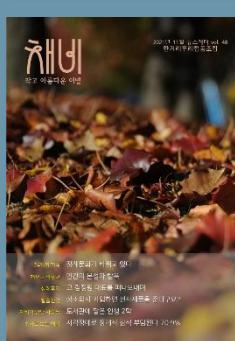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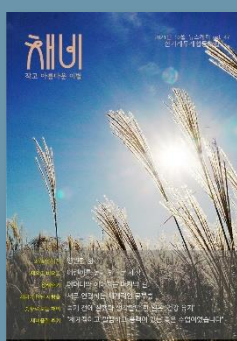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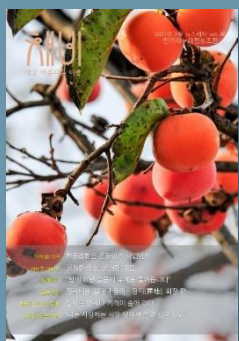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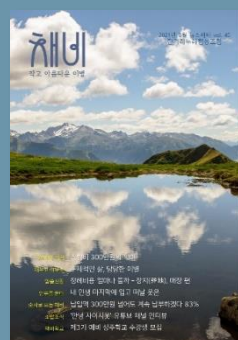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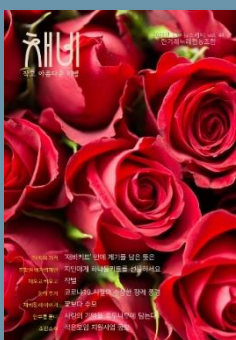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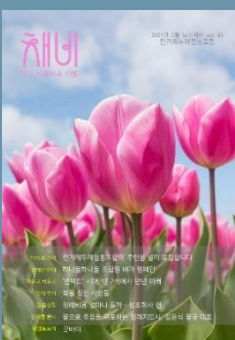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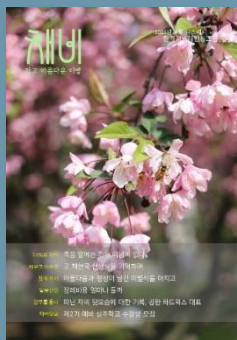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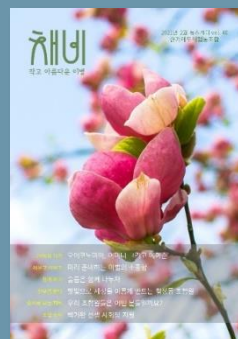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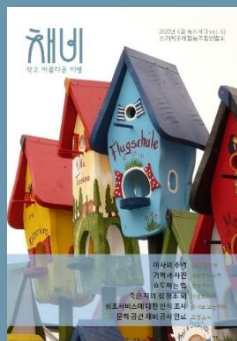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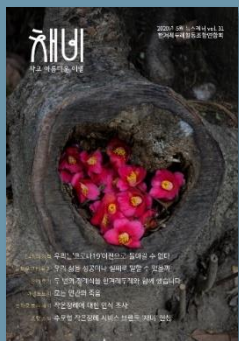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